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2012년 5월 2일 (수)

Orion communications

- 목 차 -

1.	한양대-KOTRA,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 학위 개설 한국경제 > 29면 교육/입시	1
2.	한상준 회장, 한양대에 3억원 조선일보 > 35면 인물	2
3.	[사랑방] 한양대 출신 한상준 금성제어기 회장 한양대에 3억 기부 중앙일보 > 29면 인물	3
4.	한상준회장 한양대에 3억 기탁 매일경제신문 > 33면 인물	4
5.	한상준 회장, 한양대에 3억 기부 한국경제 > 33면 인물	5
6.	한상준 금성제어기 회장 모교 한양대에 장학기금 3억 국민일보 > 21면 인물	6
7.	코이카·한양대 업무협약 "개도국 지원 앞장" 파이낸셜뉴스 > 30면 인물	7
8.	'상상력에 자유를!' 인문학 강좌 한겨레신문 > 23면 학술/문화재	8
9.	수시 추가 합격생 정시 지원 막혀 선택 신중히 논술 자신 있다면... 중앙일보 > S02면 교육/입시	9
10.	삼성생명 3회 연속 1위... 신한생명은 경제부문 선두 경향신문 > 18면 금융/재테크	10
11.	경제지표 불안감 노출... 연말까지 부진 이어질 듯 머니투데이 > 05면 경제	11
12.	굿바이~ 癌 서울신문 > 15면 지역	12
13.	"태풍에 건물이 140cm 흔들려도 안전" 머니투데이 > 17면 부동산	13
14.	"비전 공유하는 소통문화 만들 것" 한국대학신문 > 07면 교육/입시	14
15.	도계위는 개발론자 집합소 한겨레신문 > 03면 종합	15
16.	도계위도 MB측근들 대거 포진 헤럴드경제 > 03면 정치	16
17.	파이시티 용도변경, MB측근 입김 작용? 내일신문 > 05면 지역	17

18.	비공개 도계委, 공개적으로 '비리' 키웠다 아시아경제 > 03면 종합	18
19.	서울여대·아주대 컨소시엄 주축으로 7개 대학 참여 전자신문 > 19면 기획	19
20.	■ 2012년도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 한국대학신문 > 03면 정책	20
21.	충무로 기반 클러스터로 CT 특성화 한국대학신문 > 16면 특집	21
22.	靑, 젊은 예술인들과 간담회 연합뉴스 > 온라인	22
23.	[정민의 세설신어 [156]] 수오탄비 (羞惡歎悲) 조선일보 > 36면 오피니언	23
24.	[기고]정유산업 과점이 고유가 문제의 진원지 아니다 동아일보 > 29면 오피니언	24
25.	<79> 생각에 대한 생각 전자신문 > 27면 오피니언	25
26.	[부고] 조대명 조교수 모친상 문화일보 > 29면 인물	26

한양대-KOTRA,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 학위 개설

10일부터 신입생 모집

한양대는 KOTRA와 손잡고 오는 9월 학기부터 컨설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GBC) 학위 과정을 개설한다고 1일 밝혔다.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에 설치될 GBC 학위 과정은 석·박사 과정으로 운영되며 KOTRA는 졸업 요건 중 하나인 '3개월 이상 해외 인턴근무'를 지원키로 했다.

학위 과정을 마치면 중국과 인도, 러시아, 동남아시아의 신흥 시장에서 판로 개척, 투자·마케팅 분야 컨설팅 전문가로 일하게 된다. GBC 학위 과정 개설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가 자격증' 제도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입생 모집은 5월10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다. 문의전화는 031-400-5036.

하현형기자 hhh@hankyung.com

11.4 X 6.4 cm

朝鮮日報

2012년 05월 02일 (수)
35면 인물

한상준 회장, 한양대에 3억원

수배전반(전기를 받고 분배하는
합) 전문업체인 금성제어기(주) 한상
준 회장은 1일 모교인 한양대에 장
학기금 3억원을 기탁했다.

4.8 X 2.7 cm

중앙일보

2012년 05월 02일 (수)
29면 인물

사랑방

◆전시회=송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은 8일부터 한 달간 '서양인이 본 근대전환기의 한국·한국인'이란 제목의 '영천 강정훈 특별문고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강정훈 전 조달청장이 평생 수집해 기증한 한국 근현대 관련 자료 675점에 수록된 삽화를 중심으로 준비됐다. 19세기 이후 서양인의 조선 진출과 기독교의 수용 과정, 서양인의 눈을 통해 본 근대전환기 한국의 모습 등을 볼 수 있다.

◆기부=한상준 금성제어기(주) 회장이 한양대(총장 임덕호)에 1일 장학기금 3억원을 기탁했다. 한 회장은 한양대 공대 출신으로, 1978년 수배전반 전문업체인 금성제어기(주)를 설립했다.

4.7 X 8.9 cm

매일경제

2012년 05월 02일 (수)
33면 인물

한상준회장 한양대에 3억 기탁

한상준 금성제어
기 회장(74)이 1일
모교인 한양대학교
에 장학기금 3억원
을 기탁했다. 한 회
장은 한양대 본관
총장실에서 임덕호 총장에게 기금을
전달하며 “손을 잡아주면 더 큰 재목
으로 성장할 수 있는 후배들에게 조
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4.9 X 6.2 cm

한국경제

2012년 05월 02일 (수)
33면 인물

한상준 회장, 한양대에 3억 기부



한상준 금성제어기(株) 회장(74·사진)이 모교인 한양대(총장 임덕호)에 장학기금 3억원을 기부했다. 한 회장은 “조금만 손을 잡 아주면 더 큰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한양대 공대 출신으로 1978년 수배전반 전문업체인 금성제어기(株)를 설립했다.

6.2 X 5.2 cm

국민일보

2012년 05월 02일 (수)
21면 인물

한상준 금성제어기 회장 모교 한양대에 장학기금 3억

한상준(74·사진) 금성제어기(株) 회장이 장학기금 3억원을 모교인 한양대에 기탁했다.



한 회장은 1일 한양대 총장실에서 임덕호 총장에게 기금을 전달하며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 조금만 손을 잡아주면 더 큰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공대 출신인 한 회장은 1978년 수배전반 전문업체인 금성제어기(株)를 설립했다.

5.8 X 8.4 cm

코이카·한양대 업무협약 “개도국 지원 앞장”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KOICA·이사장 박대원)가 1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코이카 본부 대회의실에서 한양대학교(총장 임덕호)와 기관 간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조약정을 통해 양 기관은 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대학생 대상 국제개발협력 이해 증진사업 및 봉사단 파견, 개발조사사업, 프로젝트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대원 코이카 이사장은 “약정식을 계기로 두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개발도상국의 보건, 교육 분야는 물론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ttk@fnnews.com 김태경 기자



1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코이카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약정식에서의 박대원 KOICA 이사장(오른쪽)과 임덕호 한양대 총장(왼쪽).

10.0 X 10.3 cm

한겨레
HANGJERE

2012년 05월 02일 (수)
23면 학술/문화재

‘상상력에 자유를!’ 인문학 강좌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소장 임지현)와 글로벌다문화연구원(원장 정병호)은 오는 4일부터 6월8일까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국민국가에 갇힌 상상력에 자유를!’이란 주제로 ‘트랜스내셔널 인문학 시민강좌’를 연다. 서경식 도쿄경제대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며, 국적과 민족성이 강제하는 차별과 배제를 넘어 다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는 미래를 모색한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전체 여섯 강좌로 진행된다. (02)2220-0545.

9.9 X 4.7 cm

삼성생명 3회 연속 1위... 신한생명은 경제부문 선두

삼성생명이 국내 생명보험사들 가운데 가장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 연구소(ERISS)는 1일 "2012 대한민국 생명보험산업 지속가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생명은 100점 만점의 지속가능지수에서 730.87점을 받아 3회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생명보험 지속가능지수는 2009년, 2011년에 이어 올해도 세 번째 조사이다.

ERISS가 발표한 생명보험산업 지속가능지수는 국내 22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경제·환경·사회 3부문을 결합평가해 종합한 TBL지수와 환경성지수를 더해 산출했다. 배점은 경제 300점, 환경 90점, 사회 150점 등 TBL지수 600점, 명성지수 400점으로 총 1000점이다.

생명보험 지속가능지수 2-5위는 교보생명(711.72점), 신한생명(693.66점), 대한생명(688.54점), 푸르덴셜생명(599.64.57점) 순이었다. 지난해 조사에서 2위로 선전한 푸르덴셜생명은 5위로 내려앉았고, 반면 지난해 3위로 밀린 교보생명은 환경과 경제 부문에서 순위 상승을 이끌어 다시 종합 2위로 올라섰다.

■ 경제·사회·환경성과-삼성생명은 지속가능지수 전 부문에서 고부 좋은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지만 경제·환경·사회 3부문을 평가한 TBL지수에서는 종합 순위 3위인 신한생명에 약 5점 차이로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를 기록했다. 삼성생명의 경제(273.90점·2위), 환경(52.71점·3위), 사회(126.875점·2위) 부문 순위는 지난해와 모두 같았다. 신한생명은 사회부문이 지난해 4위에서 5위로 한계단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와 환경부문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해 TBL지수를 5위에서 1위로 끌어올렸다.

TBL지수는 1위(신한생명·457.04점)와 5위(푸르덴셜생명·432.09점)가 자리가 바뀐 것 외에도 상위 5개 생

명보험사 가운데 3개사는 모두 전년과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2011년에 이어 TBL지수 3위를 기록한 교보생명은 지난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환경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경제와 사회 부문이 각각 3위에서 8위로, 1위에서 3위로 떨어졌다. 대한생명은 경제부문에서 여섯 개단 순위상승을 이끌어 환경과 사회 부문이 순위하락에도 불구하고 4위 자리를 지켰다.

증권권의 자위다들은 순위변화에 치열했다. 동양생명·알리안츠생명·메트라이프는 TBL지수에서 순위상승을 이끌어내며 전체 지속가능지수에서 6-8위를 차지했다. 동양생명은 사회부문에서 높은 점수 상승을 보였으나, 현재 동양생명은 시장에서 연세대로 나와 있는데, 동양생명 매각 결과에 따라 향후 정보 지속가능지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환경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 중앙위권 그룹 내 다른 생명보험사들보다 환경경영성과에서 우위를 보였다.

메트라이프는 환경과 사회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했지만 점수비중이 가장 높은 경제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 명성지수-삼성생명(277.38점)은 비록 TBL지수에서 신한생명에 1위 자리를 내주었지만, 명성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며 전체 지속가능지수뿐 아니라 명성평가에서도 1회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삼성생명은 '시장조형 인지도' '국내시장 인성평가' '15-20년 후 생존가능성' 등 명성지수 전 항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명성평가에서 '부동의 1위 상승'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TBL지수와 달리 명성지수는 생명보험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한다.

연세대 ERISS 소장  윤승이

순위표

업체명	경제 (300점)	환경 (90점)	사회 (150점)	TBL (600점)	명성 (400점)	합계 (1000점)
삼성생명	2	3	2	2	1	1
교보생명	8	1	3	3	2	2
신한생명	1	2	5	1	6	3
대한생명	4	5	4	4	3	4
푸르덴셜생명	3	8	1	5	7	5
동양생명	7	7	7	6	11	6
알리안츠생명	11	4	11	9	4	7
메트라이프	5	12	12	8	14	8
라이온생명	6	12	7	7	19	9
KDB생명	10	10	19	12	9	10
ING생명	12	6	9	10	16	11
우리AVIVA생명	13	12	14	13	12	12
동부생명	15	12	6	14	13	13
AIA생명 (구 AIG생명)	9	12	13	11	21	14
미래에셋	19	12	9	16	5	15
흥국생명	14	10	16	15	17	16
하나HSCB생명	16	12	21	18	10	17
PCAS생명	17	12	16	17	18	18
농심자생명	20	12	20	19	15	19
KDB생명 (구 금호생명)	22	12	15	22	8	20
카디프생명 (구 금화생명)	18	9	22	21	20	21
에이치생명 (구 뉴생명)	21	12	17	20	22	22

명성지수

업체명	경영성과	혁신성	상품·서비스 특성	재무성과	시장조형 인지도	비전과 목표	신규직	후생인성	사회적 책임성	국제시장 영향력	15-20년 후 생존가능성	공정경영	고객만족도	CEO 리더십
삼성생명	73.3	69.8	70.4	74.1	72.4	69.8	67.1	63.5	64.7	72.2	73.5	65.5	65.1	69.4
교보생명	69.0	65.9	65.9	68.1	65.7	64.3	66.3	65.5	64.9	66.1	67.1	63.5	64.9	68.1
신한생명	64.9	61.2	63.5	63.5	64.9	61.2	61.8	61.2	62.2	63.3	63.7	62.9	61.0	60.0
알리안츠생명	60.8	61.6	62.0	60.8	60.2	60.8	64.1	59.2	60.0	63.1	60.4	61.8	61.8	59.2
미래에셋	60.4	58.8	60.4	61.2	59.8	59.6	58.2	58.2	59.0	56.9	59.6	59.4	58.6	60.4
신한생명	59.2	57.3	59.2	60.0	59.2	60.6	58.6	58.0	57.3	57.6	56.9	58.8	56.5	59.8
푸르덴셜생명	57.8	56.3	57.8	59.8	57.6	59.6	59.0	56.3	57.6	61.4	59.4	58.0	56.0	59.0
KDB생명 (구 금호생명)	57.8	59.4	59.8	59.0	57.8	59.4	56.5	56.9	56.3	56.7	59.2	59.8	55.5	58.8
KDB생명	57.6	56.5	56.1	59.0	58.0	57.6	57.1	56.7	58.0	57.1	58.4	56.3	57.3	54.9
하나HSCB생명	56.9	55.3	57.3	55.5	55.7	55.1	56.5	58.0	57.6	59.2	55.7	57.1	58.4	56.9
동양생명	54.1	54.5	56.3	55.3	59.2	56.9	58.2	56.1	57.1	53.5	56.5	56.1	55.5	56.3
우리AVIVA생명	55.1	56.5	53.9	56.1	53.9	54.9	55.9	53.5	54.7	52.9	55.3	53.3	53.5	51.1
동부생명	56.3	52.9	54.3	55.1	53.7	54.9	55.9	55.1	53.3	55.1	54.7	54.5	53.5	52.7
메트라이프	53.3	53.3	52.9	51.8	53.1	54.7	53.1	53.7	52.0	55.5	55.3	54.1	51.0	50.0
농심자생명	50.4	52.4	51.6	52.7	53.7	52.9	52.4	53.1	54.5	50.4	51.0	55.9	52.0	52.2
ING생명	53.3	51.0	51.6	52.9	51.4	51.2	50.8	50.2	52.9	53.3	54.7	53.1	51.8	48.6
흥국생명	51.4	52.0	52.9	52.7	51.3	49.8	52.2	51.0	50.4	52.9	51.4	50.4	50.6	49.0
PCAS생명	51.0	48.8	51.8	49.2	51.6	47.6	52.2	50.4	50.0	50.2	49.6	49.8	50.2	48.2
라이온생명	49.0	51.2	49.6	48.8	49.4	50.2	48.6	47.6	49.6	49.4	49.4	46.9	46.3	47.8
카디프생명 (구 금화생명)	48.2	47.3	48.2	46.9	48.6	48.6	48.6	46.5	48.6	49.0	49.2	49.2	46.7	46.1
AIA생명 (구 AIG생명)	48.2	48.4	48.2	48.6	47.6	47.1	47.8	46.9	48.4	49.2	47.8	48.2	47.3	45.1
에이치생명 (구 뉴생명)	46.7	49.2	46.3	46.9	46.7	48.4	46.1	45.5	45.1	48.2	46.1	47.8	46.3	45.3

점수표

순위	업체명	경제 (300점)	환경 (90점)	사회 (150점)	TBL (600점)	명성 (400점)	합계 (1000점)
1	삼성생명	273.90	52.71	126.86	453.48	277.38	730.87
2	교보생명	255.02	70.71	123.13	448.86	252.86	711.72
3	신한생명	277.17	63.00	115.86	457.04	236.62	693.66
4	대한생명	269.20	48.86	120.63	438.68	249.85	688.54
5	푸르덴셜생명	271.20	32.14	128.75	432.09	232.48	664.57
6	동양생명	252.56	39.86	115.00	412.81	224.45	637.30
7	알리안츠생명	228.07	51.43	106.25	385.75	244.55	630.30
8	메트라이프	268.66	27.00	104.38	400.04	212.48	612.52
9	라이온생명	264.41	27.00	115.00	406.41	195.04	601.46
10	KDB생명	237.09	28.29	96.88	362.25	228.75	591.00
11	ING생명	226.30	46.29	110.00	382.58	207.30	590.51
12	우리AVIVA생명	225.31	27.00	101.88	354.19	217.88	572.06
13	동부생명	210.23	27.00	116.25	353.48	216.67	571.15
14	AIA생명 (구 AIG생명)	242.49	27.00	103.75	373.24	191.31	564.56
15	미래에셋	184.55	27.00	110.00	321.55	237.32	558.87
16	흥국생명	218.19	28.29	99.38	345.85	206.01	551.86
17	하나HSCB생명	204.07	27.00	88.13	319.19	227.03	546.23
18	PCAS생명	196.13	27.00	98.13	321.26	200.47	517.72
19	농심자생명	178.21	27.00	95.00	300.21	210.09	510.30
20	KDB생명 (구 금호생명)	141.60	27.00	101.25	269.85	221.37	501.22
21	카디프생명 (구 금화생명)	187.74	30.86	73.13	291.72	192.19	483.91
22	에이치생명 (구 뉴생명)	187.28	27.00	98.13	292.40	187.09	479.48

지속가능지수 추진기구

■ 기획 및 주관: ERISS

■ 기획자문: 대한상의, 환경연합, 참여연대, 한국사회책임자문위원회, 한국소비자위원회

■ 후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기업평가, 유엔글로벌compact, 한국협회, 지속가능경영원, 서스틴베스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카이스트 사회책임경영연구소, 미국 하와이대학 한국학센터, 산업연련, 한국투자증권

■ 수행 기관: 한대리서치, 삼성 KPMG

■ 자문: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한국상장시장의회, 코스닥학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ERISS 지속가능지수 기획위원회 <생명보험산업지수지속가능지수 기획위원회>

<ERISS 지속가능지수 기획위원회>

■ 고문: 윤승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호 (한국사회책임자문위원회 위원장)

■ 위원장: 안병훈 (카이스트 명예교수)

■ 부위원장: 주철기 (유엔글로벌compact 한국협회 사무총장), 한현희 (글로벌이노비티 대표이사), 손호민 (하와이대학 한국학센터 소장)

■ 사회부문: 노한균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이상현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정철 (KO-CSR 대표이사)

■ 경제부문: 황상규 (SR코리아 대표이사) 이득연 (한국소비자위원 정철식)

■ 환경부문: 정재수 (에코아이 사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임대웅 (에코프라이드 상무)

■ 경제부문: 류정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 연구: 이준기 (삼일회계법인 전무) 노재성 (지속가능경영원 지속가능전략팀장) 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이상현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 박종성 (경향신문 사장실장) <조사회장: 김용학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정 (한대리서치 사장) 강재원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지혜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 <행정지수 기획: 최현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원준 (한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승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혜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

■ 수행 기관: 한대리서치, 삼성 KPMG

■ 자문: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한국상장시장의회, 코스닥학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ERISS 지속가능지수 기획위원회 <생명보험산업지수지속가능지수 기획위원회>

<ERISS 지속가능지수 기획위원회>

■ 고문: 윤승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호 (한국사회책임자문위원회 위원장)

■ 위원장: 안병훈 (카이스트 명예교수)

■ 부위원장: 주철기 (유엔글로벌compact 한국협회 사무총장), 한현희 (글로벌이노비티 대표이사), 손호민 (하와이대학 한국학센터 소장)

■ 사회부문: 노한균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이상현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정철 (KO-CSR 대표이사)

■ 경제부문: 황상규 (SR코리아 대표이사) 이득연 (한국소비자위원 정철식)

■ 환경부문: 정재수 (에코아이 사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임대웅 (에코프라이드 상무)

■ 경제부문: 류정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 연구: 이준기 (삼일회계법인 전무) 노재성 (지속가능경영원 지속가능전략팀장) 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이상현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 박종성 (경향신문 사장실장) <조사회장: 김용학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정 (한대리서치 사장) 강재원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지혜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 <행정지수 기획: 최현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원준 (한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승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혜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

■ 수행 기관: 한대리서치, 삼성 KPMG

■ 자문: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한국상장시장의회, 코스닥학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ERISS 지속가능지수 기획위원회 <생명보험산업지수지속가능지수 기획위원회>

<ERISS 지속가능지수 기획위원회>

■ 고문: 윤승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호 (한국사회책임자문위원회 위원장)

■ 위원장: 안병훈 (카이스트 명예교수)

■ 부위원장: 주철기 (유엔글로벌compact 한국협회 사무총장), 한현희 (글로벌이노비티 대표이사), 손호민 (하와이대학 한국학센터 소장)

■ 사회부문: 노한균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이상현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정철 (KO-CSR 대표이사)

■ 경제부문: 황상규 (SR코리아 대표이사) 이득연 (한국소비자위원 정철식)

■ 환경부문: 정재수 (에코아이 사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임대웅 (에코프라이드 상무)

■ 경제부문: 류정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경제지표 불안감 노출... 연말까지 부진 이어질 듯

**박재완 "3월중순부터 힘 부쳐
분야별 미세조정대책 만들것"
전문가들 "빠른회복 쉽지않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1, 2월 희망적이던 경제지표가 3월 들어 한풀 꺾이며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다. 3월중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4% 감소했다. 1, 2월에 1%대로 이어지던 증가세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광공업생산이 3.1% 감소했고 제조업, 서비스업, 소매판매, 설비투자 등 대부분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도 부담이다. 재정 조기집행 키드는 현 수준 이상의 경기 기여를 기대하기 힘들고 10개월째 한 곳에 묶여 있는 기준금리를 더 끌어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기업 투자는 대선의 불확실성에 발목이 묶여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기업은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대부분 최소한 연말까지 기업투자가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다.

정부도 경기회복세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1, 2월에 비해 3월 경기

개선타가 부진하다"며 "기존 거시정책의 틀 안에서 미세조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존 정책 틀 안에서 미세조정이 가능한 분야들을 모아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테마파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민간투자 규모 확대, 정책금융기관 채용인력 증원 등이 골자다. 박 장관은 "한두 달 정도 지표로 속단하긴 이르지만 지난 1월부터 3월 초순까지 나름대로 경기회복세가 뚜렷하다고 생각했는데 3월 중순 이후 힘이 부친 듯한 느낌"이라며 "5월에는 계속해서 분야별 미세조정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수출지표가 부진한

데 대해서는 "(수출 증대를 위해) FTA(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높인다든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특단의 노력을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와 다르지 않은 경기진단을 내놨다. 경도의 차이는 있지만 빠른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엔 대부분 동의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바닥을 다지는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최소한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부진한 데다 중국·유럽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출에 제동이 걸렸고 대선도 투자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도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의 경기둔화 등 예고된 해외발 악재보다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 복지공약 등 대내적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영환연세 경제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 경기부양을 언급하는 건 이르다"면서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일회성 소규모 주경 편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준금리를 오랫동안 동결한 만큼 추가 인하 여지는 크지 않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악화될 경우 금리인하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성원 기자 airmaster@

21.2 X 13.0 cm

굿바이~ 癌

성동, 암 검진 등 극복 콘서트

성동구는 2일 오후 2시 왕십리 민자역사 광장에서 암 극복 의지를 다지고 암 예방과 치료의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함께 걷는 희망의 길-암 극복 프로젝트'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양대병원과 함께하는 이번 콘서트는 암 검진과 상담, 암 예방 홍보, 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암 극복 콘서트, 대사증후군 검진과 관리를 위한 건강 정보 제공, 건강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콘서트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장암·유방암·전립선암 등에 대한 무료 암 검진을 실시하고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 요인을 체크하는 대사증후군 관련 검진과 체지방·내장지방·복부지방을 측정해 건강 관리 능력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갖는 시간을 마련한다.

또 암 환우회 공연과 암을 극복한 연예인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했다.

구 보건소는 이달부터 30세 이상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암 무료 검진 '굿바이 유방암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고재득 구청장은 "이번 콘서트로 주민들에게 건강 관리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5.0 X 17.7 cm

■ 현대산업개발 구조설계팀 강민석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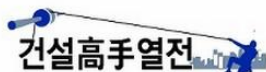
“태풍에 건물이 140cm 흔들려도 안전”

“해운대 아이파크”의 경우 최고풍속이 초속 60m인 태풍이 불면 양쪽으로 140cm 흔들립니다. 고층에 있는 사람은 어지러워 정상적인 생활이 안되겠지만 내풍설계를 통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조설계가 초고층 건물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국내 최초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플랫플레이트’ (무량판 건축구조) 공법을 적용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의 ‘아이파크’ 사옥, ‘해운대 아이파크’에 다양한 공법과 건축디자인을 시도하는 등 건축분야의 최고기술력을 보여온 현대산업개발 구조설계팀 강민석 부장(사진)은 구조설계의 중요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최근 지상 50층 이상 초고층이 늘어나면서 건축물의 미학적 부분뿐 아니라 안전성도 핵심요소로 대두함에 따라 건축 구조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산업개발이 구조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때는 삼성동 ‘아이파크’에 플랫플레이트



내풍·내진 초고층건물 ‘해운대 아이파크’ 설계

공법을 적용하면서다. 국내 최초로 시도된 이 공법은 보 없이 기둥에 슬래브만 시공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핵심이다. 삼성동 ‘아이파크’ 이후 주상복합아파트는 이 공법이 대세가 됐다.

특히 지난해 완공된 혁신적 디자인의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는 구조설계의 진수를 보여준다. 무

엇보다 지상 72층인 ‘해운대 아이파크’가 태풍과 지진에 견디도록 하기 위한 내풍·내진설계에만 한 달을 투자했다. 내풍은 태풍 ‘매미’ 때와 같은 초속 60m로 불 경우에 대비해 준비했고 내진은 원전과 동일한 진도 6.5에 맞췄다.

강 부장은 리모델링에서도 구조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반 건축물과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 중인 현대산업개발은 지상 수직증축 및 지하주차장 증축과 관련, 특허를 받았거나 출원을 준비 중이다. 강 부장은 “미학적인 건축물을 원하는 발주자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건축가의 상상력과 구조설계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구조설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양대 건축공학과에서 구조설계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건축구조를 전공한 강 부장은 1999년 국내 최초로 건물 안전을 위해 철근 배치 기준을 정리한 ‘배근상세도’를 만들었다. 이는 지금까지 4차례 개정·발간돼 내부 교육자료는 물론 타사에 전파되기도 했다.

이근호 기자 guno@

15.7 X 18.0 cm

“비전 공유하는 소통문화 만들 것”

대담 : 박성태 본지 발행인

통(通)센터 개소 등 학생들과 소통 나서



학생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아주대학 이 대학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관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한 ‘통(通)센터’를 개소하는 등 학생들이 재미있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정태경 아주대학 총장은 “젊은 총장으로서 활기차고 소통하는 대학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취임한 지 1년6개월 정도 됐다. 어떤가.

“평창이 바쁘다. 일도 많다. ‘총장’이라는 직책의 무게감이 상당하다.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 그렇지만 힘들면서도 즐겁다.”

- 구성원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주대학은 1993년 개교했다. 역사가 아지는 짧다. 총장으로선 진두지휘하면서 소통의 장벽을 없앨 수 있을까 고민했다. 총장이 ‘소통합시다’ 한다고 되겠다. 일방통행식은 안 된다. 지난해 60명의 구성원을 모아 워크숍을 열었다. ‘정말 마음 터놓고 하자’고 했다. 우리 스스로 버전을 만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소통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30주년 비전도 이렇게 만들 예정이다.”

- 새로 만든 통센터, 매우 이색적인 것 같다.

“구성원이 뭔가 새로운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자는 의의를 담았다. 대부분의 대학은 대학본부 중심으로 운영된다. 우리는 소통본부 밑에 소통센터를 만들었다.”

- 통센터의 반응은 어떤가. 성공했다 보나.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대성공이다. 원래 대학본부라는 한판 대신 소통본부라고 불리니 많이 찾는다. 학생시절에는 대학본부에 갈 길이 거의 없지 않다. 성적증명서 발급 받을 때 빼고는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니 성공했다는 생각이 든다.”

- 통센터 내에 커리어센터도 마련했는데.

“통센터 내에 있는 커리어센터는 학생과 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주력했다. 학생들은 나도 상장에 취직하고 싶다고 한다. 그런데 솔직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점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고민했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취업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교직원도 상주하면서 취업, 진로와 관련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 대학명에 ‘여주’라는 지역 이름이 있다.

“여주대학은 지역과 함께 지역 재정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성장해야 한다. 대학이 위치한 경기도 여주의 역사와 인구특성, 자연환경, 그리고 대학이 갖고 있는 교육 인프라를 주축으로 특성의 핵심 키워드를 ‘인문·고부가가치 서비스’ 체계화(석재화+지역화)로 정했다. 이를 토대로 문화관광산업·고령화산업·글로벌교육산업을 특성화할 것이다.”

- 여주대학의 큰 강점은 해외교육 아닌가.

“학생들이 되도록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구별하자 생각했다. 그래서 여주대학 건판을 신학대학원을 생각했다. 우리가 교육시킨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이들을 교육하고자 생각했다. 2006년부터 시작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우와 오도록 하는 시스템도 만들었다.”

- 우즈베크 등 러시아어권 진흥이 눈에 띈다.

“러시아어권 국가들은 편지가 크다. 신흥 국가로 떠오르고 지역이 무궁무진하다. 우리와 연결되는 강점도 많다. 그래서 교류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들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봤는데 깜짝 놀랐다. 가늠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에 우리 학생이 많이 진출해서 성과를 이뤄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아지는 문화교류 차원에 그치고 있지만 확대할 생각이다. 우즈베크·러·우크라이나 출신 교수들을 모셔서 러시아어 강의를 시작했다.”

- 여주대학 미래 비전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편한 대학’ 풍하는 대학’ 함께 공을 키우는 대학’이다. 여러 구성원의 생각이 모여서 대학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대학은 영은 하나의 직업을 모든 구성원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서로 소통하고 즐기는 대학. 비전을 함께 키우는 대학으로 만들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정태경 = 정태경 기자 duncan2@ajou.ac.kr

사진 = 한영삼 기자 news@ajou.ac.kr

36.3 X 18.5 cm

■ 정태경 총장은 ...

1970년 서울 출생. 한대고, 한양대를 졸업하고 일본 북해도대학에서 도시환경공학 석사, 건국대학교에서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2004년부터 재단법인 백운유치재단 이사장, 지난해부터 사단법인 통(通) 이사 직을 맡고 있다. 2010년 11월 아주대학 총장으로 취임했다.

강준모·임승빈·황기연·원제무 교수 등

도계위는 개발론자 집합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단지(파 이시티)에 백화점·오피스텔 등을 허용하 는 안전을 논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계위)에, 이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 업을 찬성한 교수들을 비롯해 개발론을 펴는 학자들이 여럿 포진했던 것으로 나 타났다.

1일 <한겨레>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2005년과 2008년 도계위 명단을 보면, 개발론자로 꼽히는

강준모·임승빈·황기연·원제무 교수 등 이 도계위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강준모 홍익대 교수(도시공학)는 2005 년·2008년에 도계위 위원이었으며, 지난 해 11월 재위촉돼 지금도 위원을 맡고 있 다. 강 교수는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 찬 성 인사로 분류한 인사다. 강 교수는 도계 위가 파이시티 안전을 다룬 2005년 11·12 월, 2008년 8월 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2008년 도계위 위원이자 현재 위원이



강준모 교수



임승빈 교수



황기연 교수



원제무 교수

기도 한 임승빈 서울대 교수(조경학)도 4 대강 사업에 찬성해왔다. 임 교수는 국토 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누리집에서 “그 린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08년 위원인 황기연 홍익대 교수(도시 공학)는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때 인맥인 이른바 ‘에스(S)라인’의 대표적 인사로 알 려져 있다. 황 교수는 이 대통령의 시장 시절 정계전복일지언원구단 단장을 맡았다

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 국정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지금은 고속열차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케이티엑스 (KTX)경제권포럼’의 공동대표다.

2005년·2008년에 도계위 위원이었 던 원제무 한양대 교수(도시대학원장)는 2006~2007년 ‘화물터미널 재정비 연구’ 용역에 참여해 파이시티 사업 추진을 위 한 논거를 제공했다.

박기웅 기자

도계위도 MB측근들 대거 포진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파이시티)의 인허가에 앞서 자문과 심사를 담당했던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자문 및 심사가 이뤄졌던 2005년과 2008년 당시의 도계위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세부시설 용도변경과 업무시설 비율을 상향조정한 도계위원회에 집중적으로 로비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명단 공개 요구가 빗발치자 서울시가 이를 공개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파이시티 시설 변경 관련 자문이 이뤄진 2005년 당시 도계위원장은 장석효 행정2부시장으로, 도계위원은 시 공무원과 시의원·교수 등 총 24명이다.

위원 중에는 박승준 미래기획위원회(당시 고려대 교수)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당시 언론인),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 증폭

박승준·신재민·이종찬...

서울시 2005년·2008년

도계위 위원 명단 공개

檢, 수사 확대 불가피

”

(당시 변호사), 이명박 서울시장 직무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원제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도 포함됐다.

2005년은 서울시가 양재동 화물터미널의 시설 용도변경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 도계위에 심의

가 아닌 자문 안건으로 상정된 시이다.

자문이 이뤄진 2005년 12월 7일의 제19차 도계위 회의엔 박 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이 전 수석과 원 교수는 이에 앞서 열린 2005년 11월 24일 용도변경안 자문회의에 함께 참석했다.

이어 당초 6.8%였던 업무시설 비율을 20%까지 늘려줬던 2008년 8월 20일 열린 도계위에는 21명이 참석했다.

최창식 당시 2부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공무원 4명과 원 교수 등 대학교수 11명, 김영순 당시 송파구청장, 시의원 4명 등이 명단에 들어 있다.

한편 검찰은 도계위원 및 고위 공무원 중 일부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지난달 30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서울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14.5 X 15.9 cm

파이시티 용도변경, MB측근 입김 작용?

곽승준·신재민·이종찬, 도시계획위원회 활동... 서울시, 명단 정보공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장이 인허가 과정에 보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으로 다수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제위 위원 명단 공개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 이뤄졌다.

문제가 된 회의는 2005년 11월 24일과 12월 7일에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 1·2차 전문회의(세부시설 변경을 결정한 사안으로 판단)와 2008년 8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회의(업무시설 비율 20% 미만 결정)다.

서울시가 30일 공개한 2005년 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재임 시절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당시 고령대 교수) 외에도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종찬 전 문화수석비서관 등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첫 국장기후수석을 맡는 등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곽승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5~2006년 도제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2005년 12월 7일 파이시티 용도(세부시설) 변경과 관련해 열린 도제위 2차 전문회의 때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전문회의에서 양재동 복합터미널 부지에 터미널 기능 외에 대규모 점포 등 업무시설이 포함된 복합유

통센터로의 세부시설 변경이 '경미한 사항'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이종찬 변호사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검찰 재직시절 대검 총대 수사가화관, 대검 중수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2005년 11월 24일 '파이시티' 사업 1차 전문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원재무 한양대 교수는 2005년 11월 24일과 12월 7일 파이시티 세부시설 변경을 결정하는 1·2차 전문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도제위가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을 20%미만으로 파이

시티 부지에 건립하도록 해 막대한 사회적이익을 거둘 수 있게 한 2008년 8월 회의에도 참석했다. 원 교수는 서울시장 직무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이 대통령의 측근이다.

신재민 전 차관은 언론인 시절 2005년도 도제위원으로 활동했으나 파이시티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는 두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05년 두 차례의 전문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5월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변경안을 결정·고시했다.

2005년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인 장석호 현 한국도로공사 사장, 서울시 내부 위원으로는 당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이던 최창식 현 중구청장 등이 포함됐으며, 도제위원은 시 공무원과 시의원, 교수 등

총 24명이다. 구청장으로는 강동우

강동구청장이 참석해 눈길을 끈다.

강진 구청장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최창식 구청장은 2008년 8월 도제위에선 행정부시장으로서 도제위 위원장을 맡아 안건 처리를 주도했다. 최 구청장은 "2008년 당시 파이시티 사업이 상당히 피여(지연되

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사업이 되든 안되든 서울시가 빨리 결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2008년 8월 20일 회의에는 강준모 흥익대 교수를 비롯해 황기연(홍익대), 백준홍(연세대), 최만중(서울대) 교수 등 21명이 참석했다. 대부분의 도제위원들은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했다.

강 교수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원이다. 그는 시민단체가 작성한 4대강 사업 찬동 사회인사 명단에 속한 인물이다. 황 교수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시장기밀연구원에 서형재전 부원장인구단장으로 일했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 한국교통연구원위원, 김최 교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김정택 상공판매 교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대일 기자 skkim@nail.com

2005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위원장	위원	11.24 회의	12.7 회의
장석호 서울시 행정부시장		○	○
위원(서울시 내부)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		○	○
김영철 도시계획국장		○	○
허영 주책국장		○	○
위원(외부)			
강준모 대학교수		○	○
곽승준 대학교수		×	○
김정택 대학교수		○	○
박우석 대학교수		×	○
비밀관주현 대학교수		×	×
백준홍 대학교수		○	×
신동우 강동구청장		○	○
신재민 안근기자		×	×
신해경 안근기자		×	×
오규식 대학교수		×	○
오영태 대학교수		×	○
원재무 대학교수		○	○
이인성 대학교수		○	○
이종찬 변호사		○	×
조주현 건국대 교수		×	×
조선희 시의원		○	×
최만중 서울대 교수		×	○
한영웅 시의원		○	○

* 외부위원은 가.나.다.소.○ 참석, × 불참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위원장	위원	8.20 회의
최창식 행정부시장		○
위원(내부)		
이덕수 균형발전추진본부장		○
이인근 도시계획국장		○
김효수 주책국장		○
위원(외부)		
강준모 대학교수		○
황기연 대학교수		○
김경환 대학교수		×
김기호 대학교수		○
김영욱 대학교수		○
김해정 대학교수		×
백준홍 대학교수		○
서용원 대학교수		○
오규식 대학교수		○
원재무 대학교수		○
이용재 대학교수		×
손세관 대학교수		○
임승빈 대학교수		○
최만중 대학교수		○
강영준 송파구청장		○
비철민 변호사		×
이종일 안근기자		○
조주현 시의원		○
유희숙 시의원		○
장승배 시의원		○
비대화 시의원		○

* ○ 참석, × 불참

■ 공동협력 기관

서울여대·아주대 컨소시엄 주축으로 7개 대학 참여

ETRI CPS연구팀의 CPS 핵심기술 개발은 서울여대와 아주대 컨소시엄을 주축으로 모두 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여대 컨소시엄은 CPS를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양대, 건국대, 홍익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모델 간 상호 연동

과 이를 바탕으로 모델의 재사용 등에 초점을 맞춰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CPS는 컴퓨터적인 요소만이 아닌 실제 물리환경을 포함하는 운영환경을 모델링하기 위해 합성환경 모델링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모델링 결과가 사용자 의도대로 제작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정형 검증 기술과 실제 모델이 제대

로 작동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대규모 모델의 분산 시뮬레이션 기술도 연구 중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작성한 모델의 운영결과를 3D 비주얼라이저로 확인하고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다.

아주대 컨소시엄은 CPS 미들웨어 기술을 실제 산업에 활용할 때 필요한 최적화 및 경량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에는 상공관

대, 충남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통신 개체를 고속으로 탐색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미들웨어상에서의 데이터 분배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다중통신 메커니즘, 대규모 CPS 시스템상의 미들웨어 성능 분석 프레임워크 등을 개발한다. CPS 미들웨어의 기능 안정성 및 최적화를 위한 학문적인 기반 제공도 이 연구진의 임무다. CPS 기술이 탑재될 노드 자원이 한정된 경우에도 미들웨어의 안정적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미들웨어 실행 구조를 경량화, 최적화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연구 중이다.

■ 2012년도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단위: 천원)

(출처: 대학알리미)

순위	대학	시간당 강의료	순위	대학	시간당 강의료	순위	대학	시간당 강의료
1	금오공과대	66.0	61	경남대	45.0	112	한영신학대	40.0
2	순천대	64.0	61	대구한익대	45.0	122	광운대	39.9
3	안동대	63.3	61	동국대(경주)	45.0	123	한국성서대	39.6
4	목포대	62.1	61	서원대	45.0	124	한남대	39.4
5	부경대	62.1	61	예수대	45.0	125	추계예술대	39.1
6	성균관대	62.0	61	청주대	45.0	126	세명대	39.1
7	강릉원주대	62.0	67	충신대	45.0	127	울산대	39.1
8	전북대	61.7	68	금강대	44.9	128	홍익대	38.8
9	경상대	61.5	69	김천대	44.8	129	호남대	38.7
10	군산대	61.2	70	광주가톨릭대	44.7	130	홍익대(조치원)	38.6
11	한국체육대	61.0	71	단국대(천안)	44.3	131	한국외국어대	38.5
12	서강대	60.5	72	세종대	44.2	132	배재대	38.5
13	한국해양대	60.2	73	서울여자대	44.0	133	위덕대	38.5
14	충남대	60.1	74	전주대	44.0	134	장로회신학대	38.3
15	창원대	59.5	75	단국대	44.0	135	부산가톨릭대	38.1
16	연세대(원주)	58.7	76	중부대	43.8	136	동명대	38.1
17	강원대	58.7	77	덕성여자대	43.7	137	서울기독대	38.0
18	한국기술교육대	58.5	78	가톨릭대	43.7	138	목원대	37.1
19	경북대	58.1	79	한성대	43.6	139	동아대	36.8
20	부산대	57.5	80	백석대	43.4	140	경주대	36.1
21	충북대	57.3	81	한림대	43.2	141	충원대	35.9
22	제주대	57.2	82	한국항공대	43.1	142	서울장신대	35.9
23	연세대	56.3	83	인하대	43.0	143	가야대	35.1
24	대구대	56.1	84	한국외국어대(용인)	42.9	144	고신대	35.1
25	성공회대	56.0	85	동양대	42.6	145	대진대	35.0
26	서울대	56.0	86	꽃동네대	42.6	146	목포가톨릭대	35.0
27	전남대	55.6	87	삼육대	42.4	146	선교청대	35.0
28	공주대	55.6	88	동덕여자대	42.4	146	안양대	35.0
29	영남대	55.4	89	한세대	42.1	146	용인대	35.0
30	한국교원대	54.8	90	한신대	42.1	146	한북대	35.0
31	목포해양대	54.6	91	명지대	42.1	151	부산외국어대	34.8
32	경남과학기술대	53.8	92	수원가톨릭대	42.0	152	동신대	34.8
33	이화여자대	53.6	92	아세아연합신학대	42.0	153	남부대	34.3
34	경희대	53.2	94	대전대	41.9	154	신라대	33.6
35	차의과학대	53.1	95	경기대	41.6	155	서경대	33.5
36	고려대	52.9	96	성신여자대	41.5	156	동의대	33.3
37	송실대	52.0	97	우석대	41.4	157	루터대	33.0
38	한동대	51.9	98	광주대	41.4	157	칼빈대	33.0
39	계명대	51.8	99	한서대	41.3	159	침례신학대	32.5
40	포항공과대	51.6	100	건양대	41.1	160	영산대	32.1
41	조선대	50.8	101	순천향대	41.0	161	한일장신대	32.1
42	서울시립대	50.7	102	나사렛대	41.0	162	대불대	32.0
43	건국대	50.3	102	한라대	41.0	163	영산신학대	32.0
44	원광대	50.3	104	그리스도대	40.9	164	영동대	31.7
45	평택대	50.3	105	서울신학대	40.8	165	부산장신대	31.3
46	아주대	50.2	106	상지대	40.7	166	동서대	31.1
47	한양대	50.1	107	관동대	40.6	167	수원대	31.1
48	고려대(세종)	50.1	108	선문대	40.5	168	예원예술대	31.0
49	인천대	50.1	109	협성대	40.5	169	한국국제대	31.0
50	한양대(ERICA)	50.0	110	호서대	40.1	170	대신대	30.8
51	울산과학기술대	50.0	111	국민대	40.1	171	광주여자대	30.7
52	건국대(글로벌)	49.7	112	갈리교신학대	40.0	172	대전신학대	30.6
53	동국대	47.8	112	강남대	40.0	173	대구예술대	30.0
54	숙명여자대	47.6	112	경동대	40.0	173	호남신학대	30.0
55	대구가톨릭대	47.1	112	경성대	40.0	175	을지대	28.0
56	상명대	46.8	112	국동대	40.0	176	영남신학대	27.0
57	인천가톨릭대	45.8	112	대구외국어대	40.0	177	건동대	25.0
58	상명대(천안)	45.8	112	대전가톨릭대	40.0	177	광신대	25.0
59	우송대	45.6	112	성결대	40.0	177	중앙승가대	25.0
60	경일대	45.0	112	인제대	40.0	177	한중대	25.0

선택지토록 한 배경이다.

한 예다. 과거 신문, 방송으로만 볼 수 있었던 리모콘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로 다양화되면서 시청자의 '트렌드 미디어'로 진화했다. 유망한 장르가 다양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시청자와 문화와 콘텐츠를 개발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 예술·문화·경영 융합교육도
 융합학 = 2010년 현재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는 1조5천66억 달러다. 약 1억 4천만 1000명의 발전이 넘는 규모다. 이렇듯 미아태평양의 발전에 따라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팽창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콘텐츠 조성이 향후 5년간 연평균 5%씩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국래는 LINC+인 산업을 제7차 동국대 문화콘텐츠 산업이 처음 태동한 총무로에서 비상을 꿈꾸고 있

5년 뒤를 전망한 바에 따르면 2012년에는 취업률이 71.3%에서 77.3%까지 올라가며, 산업협력 가족회사 수는 430개에서 930개로 늘어난다.

또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을 가진 조건으로 두는 산업협력 중점 교수 수는 18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도하고 산학 공동

신화영 기자 press75@un.net

기업이 주제 내고 학생은 팀 짜 과제 수행

LINC사업단 박해상 팀장은 “후
업한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채용되지 않은 학생들도 과제 수행
후 이를 기업 관계자 앞에서 설명해
야 하기 때문에 실무에 자신감을 얻

동국대의 ICIP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서울아코드사업'에서도 공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택됐다. 사업목적인 '대학 IT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선 인턴십과 캠프한다지인이 결합된 ICIP가 제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과 사회관계 구축



양민서(楊民瑞)·박수환(朴守煥) 등 무로 겔치발다(牟呂池拔多)로 조스(趙斯)형이다. 이 지역에 팔점(八占)문(文)조(趙) 관련 기념물과 명적(鳴笛)학원(學園) 관련 구획(구획)이다. 고부(古夫)까지 산업(産業)출판(出版)·영화(映畵)·특수(特許)·애선(愛仙)·개인(個人)·개발(開發)·문화(文化)에서

[illegible]

靑, 젊은 예술인들과 간담회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2-05-01 14:00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청와대가 1일 청년 예술 전공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김석봉 문화체육 비서관, 김석원 국민소통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북아현동 추계예술대학을 방문해 '예술가, 노동자로 살아가다'를 주제로 예술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과 졸업생 350여명과 열띤 토론을 했다.

특히 장기호 서울예대 교수, 김희재 추계예대 교수, 박은실 유네스코 한국위원, 소설가 전민식 씨와 국민대·경기대·동아방송예술대·상명대·한양대·추계예대의 예술대학 학생회 간부들이 공식 토론자로 참석, 예술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술 전공자에 대한 대학역량강화사업 취업률 기준 완화, 예술인 복지법 강화 등의 주문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은 청와대 세대공감팀이 기획한 '청년, 청와대를 만나다' 시리즈의 두번째 행사이다. 첫 행사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용인대에서 '체육계 전공생의 청년 취업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개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대공감팀을 중심으로 각계 청년과 젊은 직장인, 여성 근로자들과 자주 소통함으로써 '2040 세대'의 민의를 청취하고 이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leslie@yna.co.kr



정민의 世說新語 [156]

수오탄비 (羞惡歎悲)

어떤 사람이 강백년(姜柏年)에게 제 빈
한한 처지를 투덜댔다. “자네! 출근은 주
운 겨울 밤 순찰 도는 야경꾼을 생각하게
출근 않게 될 걸세. 배가 고프는가? 길가에
서 밥을 구걸하는 아이를 떠올리게.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네.” 옛말에도 “뜻 같지
않은 일을 만나거든 그보다 더 심한 일에
견주어 보라. 마음이 처차 질로 시원해지
리라”고 했다.

‘언행취찬(言行叢纂)’에 수오탄비(羞
惡歎悲), 즉 인생에 부끄럽고 미워하고 탄
식하며 슬퍼해야 할 네 가지 일을 꼽은 데
목이 있다. 그 글은 이렇다. ‘기난은 부끄

러울 것이 없다. 부끄러운 것은 기난하면
서도 뜻이 없는 것이다. 천함은 미워할 만
한 것이 못된다. 미워할 만한 것은 천하면
서도 무능한 것이다. 늙는 것은 탄식할 일
이 아니다. 탄식할 일은 늙어서 부끄러움
을 모르는 것이다. 죽는 것이야 슬퍼할 것
이 못 된다. 슬퍼할 것은 죽은 뒤에 아무
일됨이 없는 것이다. (貧不足羞, 可羞是
貧而無志; 賤不足惡, 可惡是賤而無能;
老不足歎, 可歎是老而無恥; 死不足悲,
可悲是死而無稱.)’

인(高人)의 뜻 병중에 지라나누나(貧堅志
士節, 精長高人情).’ 이것은 백거이(白居易
易)의 시다. 기난과 질병은 뜻높은 선비의
정신마저 꺾지는 못한다. ‘주머니 비져 배
움 더욱 넉넉해지고, 집 기난해 사람 더욱
우뚱해지네(囊空學愈富, 屋簷人更傑).’
소식(蘇軾)의 작품이다. 빈천(貧賤) 속에
학문이 깊어지고 의기가 더욱 솟아난다.
박치고 일어서아지. ‘늙을수록 더욱 씩씩
하고, 궁핍수록 굳세어 한다(老當益壯, 窮
當益堅).’ 마원(馬援)의 말이다. 노익장
(老益壯)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 늙어
주눅든 모습처럼 보기 민망한 것이 없다.

‘살아서는 뜻을 빼앗을 수가 없고, 죽어서
는 이름을 빼앗을 수가 없다(生則不可奪
志, 死則不可奪名).’ ‘예기(禮記)’의 구
절이다. 남이 뺏지 못할 뜻과 이름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해야지, 남이 안 알아주는
것을 탄식하지 말라는 얘기다.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미워할 것(羞惡)
은 빈천이 아니다. 그 앞에 기가 꺾여 재플
에 허물어지고 마는 것이다. 탄식하고, 슬
퍼할 일(歎悲)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령 떨고, 이
런 것 없이 큰소리치다가 죽자마자 잊히지
는 일이다.

한양대 교수 고전문화

정유산업 과점이 고유가 문제의 진원지 아니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석유제품 가격하향 안정화정책을 추구했다. 석유수입사 비축 의무 면제, 가격공개제도 실시, 알뜰주유소 확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개설 등을 추진했지만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했다. 최근 범부처가 공동으로 '석유제품 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이라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효성은 불확실하고 여론도 냉랭하다.

정부는 정유산업의 과점 체계를 문제의 진원지로 보고 있지만, 이 때문에 가격하향 안정화가 달성되지 않는다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정유산업은 거대한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생산기술적 특성 때문에 과점 구조를 이룰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석유제품 도매시장의 과점 여부다. 정유산업이 과점산업이라는 것과 정유사가 유통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느냐의 문제는 별개다.

석유 도매시장은 국내 정유사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도매시장이 완전 자유화되어 있어 국내 정유사가 정상 이윤을 넘어서는 마진을 누릴 경우 해외의 대형 수입사 진입이 항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긴 하지만, 잠재적 진입기업의 잠재 위협으로 인해 석유 도매시장은 국내 정유사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쟁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시장개방화는 국내 정유사에 대해 역차별이라고 할 정도로 제도화돼 있긴 하지만,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현상을 '시장개방화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시장개방화가 되면 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국내 기업에 기술적 우위를 보유했을 경우 경쟁적 가격정책을 한다면 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높

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한 대책 중 석유제품 혼합판매 활성화,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한 특별 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석유제품 혼합판매 확대를 위해 '섞인 기름' 여부를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한다고 한다. 품질 문제나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무시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소비자가 정유사 제품인지 수입제품이 섞인 혼합제품인지를 모른 채 운에 맡기고 주유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주유소가 혼합판매로 인한 이익을 소비자와 나눌지 의문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 0% 할당관계 적용, 수입부과금 환급,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석유제품의 품질규격이 우수하고 평균단가가 낮아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는 물량의 50%가 수출되는 현

실을 감안한다면,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한 특혜는 우스꽝스럽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이 없는 외국 정유사를 지원하는 제도가 정당성이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결국 에너지 제도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시장가격에 따라 국민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영세민과 에너지 소외계층의 직접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녹색성장과 동반성장을 함께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 춘 겐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23.6 X 11.2 cm



유영만의 체인지

體 認 知

〈79〉

생각에 대한 생각

남다른 '생각'은 과연 어디서 유래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남의 '생각'이 나의 '생각'처럼 '생각'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언제부터 '생각'을 먹어왔지만 내 의지대로 내 '생각'을 먹어오지 않았다. '생각'은 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머릿 속에 들어와 내 '생활'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대화를 하고 의견을 말하며 의사결정을 할 때 '생각'이 관여한다. '생각'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행동에 명령을 내리는 '생각'이 내 의지대로 먹은 '생각'이 아닐 수 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인가. 과거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틀에 박힌 '생각'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생각'하는 나 자신을 '생각'해보는, 즉 '생각'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 '생각'의 오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해주는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삶이 송두리째 바뀐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정말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 '생각'은 과연 내 '생각'인가. 내 '생각'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틀에 갇힌 비슷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생각'이 필요하다. 그래야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생각'을 바꾸려면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신의 독립에 이르려면 먼저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생각 없이 중대한 의사결정에 휘말리는 수가 많다. CEO는 Chief Executive Officer지만 생각할 시간 없이 바쁘게 일만 하면 Chief Exhausted(고갈된) Officer, 즉 에너지가 소진된 경영자가 될 수 있다. 빌 게이츠가 생각주년을 갖는 이유도 현실적 틀에서 벗어나 미래를 전망하는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기 위해서다.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 010000@hanyang.ac.kr

11.4 X 15.9 cm

문화일보

2012년 05월 01일 (화)
29면 인물

■ 부고

▲강세훈포커스신문사전편집고문 모친상=30일 부산남산 동침례병원. 발인 3일 6시 051-580-1334

▲정행원국가유공자 별세, 종필공무원·현충한국외환은행 차장 부친상, 박은식·차기문의사·김현중의사 장인상=3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7시 02-3410-6915

▲송재철한국수력원자력경영관리본부장·명순국방부정보 본부해외정보차장 모친상=30일 22시 경주동산병원. 발인 3일 10시 054-774-0288

▲우영전충북예총회장 별세, 상훈사업 부친상, 하우진다미 푸드대표 장인상=30일 14시50분 청주참사랑병원. 발인 2일 7시 043-298-9200

▲이정목세무사 별세, 종훈메디원원장·종한호서대교수·해정주부·해송주부 부친상, 홍준범두산중공업상임고문·김동환동국대교수 장인상=30일 4시40분 건국대병원. 발인 2일 6시 02-2030-7902

▲길무공신망애한의원장 별세, 자연왕성교회당회장 동생 상=30일 20시4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일 9시 02-2227-7580

▲김상범르노삼성자동차지점장 부친상, 강영환인포마스터 본부장 장인상=30일 16시45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6시 02-3410-6901

▲민준기전국가대표력비감독 모친상=30일 16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8시 02-3410-6917

▲성희용사업·회건사업 모친상, 송남철조선AD대표이사·김인태SNS과장·이봉우거성일렉트콤부장 장모상=30일 14시33분 여산삼성병원. 발인 2일 9시 041-331-4444

▲신금식전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해식전제일은행지점장·정식우리부동산대표 모친상=30일 0시5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일 7시 02-3010-2236

▲조대명한양대교수 모친상, 최돈길KT근무·임대혁사업장모상, 배수현한국3M부장 시모상=30일 9시34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일 8시 02-3010-2292

6.2 X 13.4 cm